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 차 례

1. 개요
2. 추진 현황
3. 평가 및 전망

## 주요 내용

-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육로를 연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로 구성됨.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총 64개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회랑이 구축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와 경제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63%(약 44억 명), 29%(약 21조)를 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므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기한 후 현재까지 연선국가 지도층과 회담을 지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

'일대일로' 핵심 이념별 추진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정책 소통	- '일대일로' 전략 추진 및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 - 정상회담, 국제회의 등에서 총 56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의체결
인프라 연결	- '일대일로'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인프라 구축 - △기술표준 △교통 △에너지 △정보 등으로 나누어 국가별 추진
무역 원활화	- '일대일로'의 핵심영역으로 국가간 투자·무역의 장벽 제거 및 활성화 - △투자·무역 편리화 △협력플랫폼 구축 등으로 나누어 국가별 추진
자금 융통	-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버팀목 역할로 양자·다자 간 협력심화 - △금융협력 △위안화 국제화 △금융감독 협력 등으로 나누어 추진
민심 상통	- '일대일로'의 사회적 근간으로 다자간 민간협력 기반조성 - △교육·문화 △관광 △과학기술 △민간 교류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

- 지난 3년간 100여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등에 '일대일로' 건설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독려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 향후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됨.
  -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국과 주변 국가간 연결이 지난 3년간 수행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부분의 해외투자가 실현되었다고 평가됨.
  - 또한 최근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향후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互联互通) 및 무역 편리화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1. 개요

■ [정의]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육로를 연결한 ‘일대(一帶)’를 가리키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 ‘일로(一路)’를 가리키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로 구성됨.<sup>1)</sup>

-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총 64개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회랑이 구축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총인구와 경제규모는 각각 전 세계의 63%(약 44억 명), 29%(약 21조)를 차지하고, 무역규모는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므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기한 후 현재까지 연선국가 지도층과 회담을 지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림 1. ‘일대일로’ 노선도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7. 5. 3).

■ [배경] 중국 지도부의 ‘일대일로’ 추진 배경은 중국 내 △공급과잉 및 불균형 해소 △교역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 △에너지 수송 및 안보 강화 등으로 분석됨.

1)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발트해)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중국-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 등을 잇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을 중점 추진하며,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연안 항구와 인도양, 남태평양 등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효율 운송통로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함.

- [공급과잉 및 불균형 해소] 중국정부는 주변국들의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공급과잉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개발이 낙후된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대일로’를 추진함.
    -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을 추진해 왔으나 동부 지역과 내륙 지역인 중·서부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을 늘리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교역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구를 확대하면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상품 및 자본 거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음.
    - 한편 2016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되면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수송 및 안보 강화] 중국으로 수입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중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치기 때문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동시에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에너지의 육로수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과정]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한 후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18届中央委员会第3次全体会议)」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공식화하였고, 이후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됨.
-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이념은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대 이념을 바탕으로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지향하며, △평화·협력 △개방·포용 △상호이해 △윈윈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推进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은 박차에 가하고 있음.

표 1. ‘일대일로’ 핵심 이념

구분	주요 추진 내용
정책 소통 (政策沟通)	- 정책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 기반 구축 - 국가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의견 조정
인프라 연결 (设施联通)	- △육로 △수로 △항만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협력 확대 - 주요 거점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자원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국가간 기초설비건설계획 및 기술표준시스템 연계 강화

표 1. 계속

구분	주요 추진 내용
무역 원활화 (貿易暢通)	- 공동 자유무역구 건설 확대 추진 - 국가간 △무역 △투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범 마련 - △IT △BT △신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산업 영역 협력 확대
자금 융통 (資金融通)	- 아시아 통화안정을 위한 금융협력시스템 강화 - △AIIB △BRICs 개발은행 △ADB △실크로드 기금 등 국제금융기구 확대 - '일대일로' 참여국 정부 및 기업의 중국 내 채권 발행 확대
민심 상통 (民心相通)	- △문화 △관광 △교육 등 교류 확대 - 교육의료 및 빈곤구제 부문 개선을 통한 민간단체 교류 추진 - △관광 △IT △기술 등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자료: 중국 언론 자료 종합.

표 2. '일대일로' 주요 추진 과정 및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3. 9	-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일대일로' 전략 제시
2013. 11. 12	- <3중 전화>에서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시
2014. 11. 6	-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설립 발표
2014. 12. 29	- 실크로드 기금 설립
2015. 2. 8	- '일대일로' 건설 공작영도소조 구성
2015. 3. 28	-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 발표
2015. 7. 21	- 브릭스 국가 신개발은행(NDB) 설립
2015. 10. 29	- <5중 전화>에서 '일대일로' 건설 가속화 및 협력확대, 전방위적 개방 추진 강조
2015. 12. 25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2016. 3	- 「13.5 계획」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
2016. 6. 25	- '제1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6년 연차총회' 베이징 개최
2016. 10. 1	-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정식 편입
2016. 11. 17	- UN 총회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최초로 결의안 채택
2017. 5. 14	- [예정]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2017. 6. 16	- [예정]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7년 연차총회' 개최

자료: 중국 언론 자료 종합.

## 2. 추진 현황

- 본고는 2017년 2월 상무인쇄출판사에서 발간한 「‘일대일로’ 연도보고서(‘一带一路’年度报告: 行者智见)<sup>2)</sup>를 중심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으로 구분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성과, 전문가 평가 및 향후 전망을 살펴봄.

### 가. 정책 소통(政策沟通)

- 정책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소통’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정상회담 △고위급 포럼 △국제기구협력 △MOU 등의 협약 △정부간 대화 및 소통 등을 통해 추진되어옴.

-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해외순방 또는 타 국가 정상과의 중국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에 관한 협의 및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보아오 포럼 △‘중국-ASEAN(10+1)’ 회의 △G20 정상회담 △APEC 회의 등 고위급 포럼에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협의를 도출함.
- 또한 △UN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sup>3)</sup> △상하이협력기구(SCO)<sup>4)</sup>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sup>5)</sup> △유엔개발계획(UNDP)<sup>6)</sup> △세계보건기구(WHO)<sup>7)</sup> 등의 국제기구회의에 참석해 △공동성명 △공보 △협력 및 협의를 통한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양국 정부간 △항공 △세관 △검역 부문 등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책소통을 추진함.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말 기준 37개 국가(아시아 18개, 유럽 9개, 아프리카 3개, 라틴아메리카 4개, 오세아니아 3개국)를 방문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까지

2) 2017년 2월에 출판된 「‘일대일로’ 연도보고서(‘一带一路’年度报告: 行者智见)」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시행 3주년의 성과에 대해 정리한 최신자료이며, 보고서 통계수치는 대부분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된 기구.

4)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문화, 환경보호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한 정부간 기구.

5)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약자로 UN 총회 아래에서 ECOSOC와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 국제연합전문기구들이 수행하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등의 여러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

6)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약자로 유엔특별기금(UN Special Fund)과 확대기술원조계획(UN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합·설립하여 1966년에 발족한 유엔 전체의 개발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

7)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조정, 회원국 정부의 보건 부문 발전을 위한 원조제공, 전염병과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활동, 보건관계 단체간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1948년 194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

총 56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참여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MOU 및 협의를 체결함.

-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5년 3월 28일에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만을 위한 독창곡이 아닌 세계 각국이 함께하는 합창곡'이라고 표현하면서 대규모 생산력 및 건설능력을 해외로 보내 연선국가에 필요한 △산업화 △현대화 △인프라 시설 수요를 충족시켜 다양한 차원의 양자·다자 간 협력메커니즘을 통한 연선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처럼 각국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정책소통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欧亚倡议)'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맹(欧亚经济联盟)' △몽골의 '초원의 길(草原之路)' △UN의 '융커플랜(容克计划)'<sup>8)</sup> △호주의 '북부대개발(北部大开发)' 등 각국과의 발전전략 공조 및 '일대일로'의 다차원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표 3.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서명한 국가 및 국제기구

순서	시기	국가 및 국제기구	순서	시기	국가 및 국제기구
1	2014. 6. 3	쿠웨이트	22	2016. 1. 21	이집트
2	2014. 9. 13	타지키스탄	23	2016. 1. 23	이란
3	2014. 10. 11	독일	24	2016. 3. 23	네팔
4	2014. 11. 3	카타르	25	2016. 3. 23	란창-메콩강 국가
5	2014. 11. 13	ASEAN	26	2016. 3. 29	체코
6	2015. 3. 11	그루지야	27	2016. 4. 9	스리랑카
7	2015. 3. 25	아르메니아	28	2016. 4. 11	ECOSOC
8	2015. 5. 8	러시아	29	2016. 5. 18	아프가니스탄
9	2015. 6. 6	헝가리	30	2016. 6. 18	세르비아
10	2015. 7. 10	SCO	31	2016. 6. 20	폴란드
11	2015. 8. 31	카자흐스탄	32	2016. 6. 22	우즈베키스탄
12	2015. 9. 28	EU	33	2016. 9. 9	라오스
13	2015. 10. 22	영국	34	2016. 9. 9	UNDP
14	2015. 10. 31	한국	35	2016. 9. 29	벨로루시
15	2015. 11. 11	몽골	36	2016. 10. 14	방글라데시

8) 2015년 3월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대규모 장기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EU 각국이 총 3,15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말하며, 중국은 2015년 9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중·EU 경제무역 고위급회담'에서 유럽 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융커플랜에 참여할 계획을 밝힘.

표 3. 계속

순서	시기	국가 및 국제기구	순서	시기	국가 및 국제기구
16	2015. 11. 14	터키	37	2016. 10. 14	캄보디아
17	2015. 11. 23	말레이시아	38	2016. 11. 2	키르기스스탄
18	2015. 11. 25	동유럽국가연맹	39	2017. 1. 19	WHO
19	2015. 12. 11	아제르바이잔	40	2017. 3. 21	이스라엘
20	2015. 12. 22	이라크	41	2017. 3. 27	뉴질랜드
21	2016. 1. 19	사우디아라비아	42	2017. 4. 5	핀란드

자료: 「聚集“一带一路”政策沟通的三维成果」(2017), 『中国经济时报』, (4月17日)

■ 한편 2017년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고위급 인사 약 1,200명을 초청하여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国际合作高峰论坛, 이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포럼>은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와 ‘6개 주제별 세션’으로 이루어지는 ‘1+6’ 모델을 채택,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해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 ‘6개 주제별 세션’의 주제는 △정책 소통과 발전전략 연계 △상호소통 및 연계와 변형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대일로 경제통상 협력 심화 △투융자 시스템의 다원화를 통한 일대일로 건설 촉진 △민심 상통을 통한 공동 번영 발전 촉진 △스마트 실�크로드 협력 건설임.
- 또한 <포럼>에서 △인프라 △산업투자 △경제통상협력 △에너지 자원 △금융 협력 △인문교류 △생태환경 △해상협력 등 8개 중점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류하여 협력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 나.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 기초시설 건설 및 인프라 연결은 ‘일대일로’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 △기초인프라 기술표준 시스템 구축 △교통인프라 구축 △에너지인프라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및 아시아 국가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기술표준] 각 국가 간 산업 및 영역별 표준이 상이하므로 기초인프라 기술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선국가 및 무역 파트너 국가의 표준을 상호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통해 중국의 기술표준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발개위>는 2015년 10월 22일 「2015~17 표준화 구축에 대한 ‘일대일로’ 행동 계획(标准联通 ‘一带一路’行动计划2015-2017)」을 발표하여 10개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고, 인프라 연결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상호 표준 인증 프로그램과 표준화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상호 표준 인증 작업을 가속화함.

- 한편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표준 제정 및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인프라 투자 △무역 △에너지 △금융 △산업 △유통 △표준 △환경보호 △농업 △인문 △정보 △싱크탱크 △지역협력 등 13개 중점영역에 협력을 강화함.

■ [교통]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수주를 받아 건설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는 38건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26개국과 연결되며,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조 6,000억 달러, 연평균 약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은 2016년 6월 말 기준 연선국가를 통해 유럽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열차 노선을 39개로 확장하면서 최근 3년간 △고속철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인접해 있는 각 성(省)별로 15개의 신 공항건설 및 28개의 공항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민용항공국이 2015년 6월 29일에 발표한 「2015년 중점 추진 중대형 프로젝트 포지티브리스트(2015年重点推进的民航大中型项目清单)」 중 ‘일대일로’ 전략 프로젝트 51개가 포함되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2,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중국 국유기업이 해외에서 체결 및 수주한 △발전소 △송전 △송유관 등 중점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40건으로 2016년 상반기에만 16건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연선국가 19개국이 연결됨.

- 2014년 중국-중양아시아 천연가스관 D라인<sup>9)</sup>과 중부 러시아의 동쪽라인 천연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루마니아, 영국,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하고, 앙골라, 브라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 수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함.

- 한편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사업은 실크로드 기금이 처음으로 사용된 대외투자 항목으로 향후 각종 금융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에 자금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9) 중국-중양아시아 가스관 사업 중 타지키스탄 구간을 가스관 D라인이라고 부르며, 타지키스탄 구간은 기존의 A라인, B라인, C라인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기점으로 하지만 D라인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파미르 고원을 지나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지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계획으로 추진됨.

- [정보] 정보인프라 사업영역은 △해저 및 육상 케이블 건설 △위성신호 및 GPS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아 발전 가능성이 큰 대부분의 연선국가들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표 4. '일대일로' 정보인프라 구축 주요 추진 사례

일시	프로젝트 명	지역 및 국가	영역	본부	목표	성과
2014	중국-ASEAN 국가정보센터	ASEAN 10개국	광대역인터넷 플랫폼서비스	난닝(南宁)	2020	핵심기지 건설 및 운영
2014	아시아-유럽 정보 실크로드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광케이블	우루무치(乌鲁木齐)	2020	글로벌 인프라 시설 건설
2015	인터넷 실크로드	아랍국가 연맹	광대역인터넷 플랫폼서비스	인촨(银川)	지속추진	닝샤(宁夏) 허브기지 비준
2015	동(东)아프리카 정보 실크로드	동 아프리카 5개국	광대역인터넷 플랫폼서비스	-	2020	아프리카 정보실크로드 시범운영

자료: 「如何打造“信息丝绸之路”」(2017), 『中国发展观察』, 第6期.

- 정보인프라 건설은 해저 및 육상케이블 건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위성통신과 GPS 또한 중점 영역에 포함되어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정부 및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정보인프라 건설은 △공공성 △장기성 △다변성 △한계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파트너국과의 △발전전략 △자원역량 △개발계획 △개방정도 등에 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다. 무역 원활화(贸易畅通)

- '무역 원활화'는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영역으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편리화 △투자 편리화 △협력플랫폼 구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장벽 제거 및 투자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투자 편리화] 중국은 투자구조 개선을 위해 연선국가 간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장벽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투자편리화를 위해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연선국가 간 104건의 양자투자 협정을 체결하였고, '경제무역연

합위원회(经贸联委会机制) 및 ‘투자협력촉진기구(投资合作促进机制)’를 설립,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편리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투자는 누적금액 약 511억 달러를 기록, 동기대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12% 증가하였으며, 그중 2016년 상반기에만 68.6억 달러로 동기대비 총액의 7.7% 성장을 기록함.
- 주요 투자대상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라오스 △러시아 순이며,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대중국직접투자액은 33.6억 달러로 동기대비 총액의 4.8%를 차지함.

■ [무역 편리화] 무역 편리화를 위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총 14개국이며, 이 국가들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11개국이며, 현재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sup>10)</sup> △걸프협력회의(GCC)<sup>11)</sup> 등 ‘일대일로’와 연계한 9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선국가와의 상품 교역액은 3.1조 달러를 기록, 이는 중국 전체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2016년 6월 말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체결한 아웃소싱 계약 규모는 94.1억 달러로 동기대비 33.5% 증가함.
- 또한 중국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跨境电商电子商务综合实验区)’를 설립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교역방식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은 복잡한 서류심사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 ‘원스톱서비스(单一窗口)’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관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통관 일체화(通关一体化)’를 추진 중에 있음.
- ‘일대일로’를 위한 ‘무역 편리화’ 추진이 연선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통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이 목표로 하는 ‘국제물류대동로(国际物流大通道)’ 건설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플랫폼] 이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선국가의 항만 및 변경지역에 △변경경제협력구 △글로벌경제협력구 등 국경 중점지역에 ‘일대일로’ 공공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1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FTA·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며, RCEP 발효 시 총인구 30억 명 및 20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됨.

11)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페르시아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지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1981년 5월에 설립한 기구.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은 연선국가 중점 지역에 ‘중점개발·개방시험구(重点开发开放试验区)’ 5개, ‘변경경제협력구(边境经济合作区)’ 17개, ‘글로벌경제협력구(跨境经济合作区)’ 1개를 건설하였고, 현재 11개의 글로벌경제협력구가 건설 중에 있음.

표 5. ‘일대일로’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건설 현황

지역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건설 현황	지역	변경지역 경제협력구 건설 현황
네이멍구(内蒙古)	- 만저우리변경경제협력구 (满洲里边境经济合作区) - 얼렌하오터변경경제협력구 (二连浩特边境经济合作区)	윈난(云南)	- 허커우변경경제협력구 (河口边境经济合作区) - 린창변경경제협력구 (临沧边境经济合作区) - 완딩변경경제협력구 (畹町边境经济合作区) - 루이리변경경제협력구 (瑞丽边境经济合作区)
랴오닝(辽宁)	- 단둥변경경제협력구 (丹东边境经济合作区)		
지린(吉林)	- 지린훙춘변경경제협력구 (吉林珲春边境经济合作区)		
	- 허룽변경경제협력구 (和龙边境经济合作区)	신장(新疆)	- 이닝변경경제협력구 (伊宁边境经济合作区) - 보러변경경제협력구 (博乐边境经济合作区) - 타칭변경경제협력구 (塔城边境经济合作区) - 지무나이변경경제협력구 (吉木乃边境经济合作区)
헤이룽장(黑龙江)	- 헤이허변경경제협력구 (黑河边境经济合作区) - 수이펀허변경경제협력구 (绥芬河边境经济合作区)		
광시(广西)	- 동싱변경경제협력구 (东兴边境经济合作区)		-
	- 핑샹변경경제협력구 (凭祥边境经济合作区)	-	

자료: 「“一带一路”年度报告：行者智见」(2017), 『中国印书馆』, (2月)

- 또한 2016년 6월 30일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 18개국에 52개 ‘경제무역협력단지(经贸合作区)’를 건설하였으며, 현재 13개 ‘경제협력단지’가 비준을 통과하면서 관련 누적 투자총액이 156억 달러를 초과함.
- 이처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제협력단지 건설을 통해 △기초인프라 설비 △공공서비스 기능 완비 등의 효과를 거두면서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走出去, 저우추취) 및 관련 국제생산능력과 장비 제조업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표 6. 중국의 심사를 통과한 역외 경제무역협력 단지 현황

협력구	시행기업명
캄보디아 시허누커항 경제특구 (柬埔寨西河努克港经济特区)	장쑤 타이후 캄보디아 국제경제협력구 투자 유한회사 (江苏太湖柬埔寨国际经济合作去投资有限公司)
태국 타이중 루오용 공업단지 (泰国泰中罗勇工业园)	화리 산업그룹 유한회사 (华立产业集团有限公司)
베트남 롱장 공업단지 (越南龙江工业园)	치엔장 투자관리 유한책임회사 (前江投资管理有限责任公司)
파키스탄 하이얼-루바 경제지구 (巴基斯坦孩儿-鲁巴经济)	하이얼그룹 전기산업 유한회사 (海尔集团电器产业有限公司)
잠비아-중국 경제무역협력구 (赞比亚中国经济贸易合作区)	중국 요우서 광업그룹 유한회사 (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 (埃及苏伊士经贸合作区)	중국-아프리카 타이다 투자주식 유한회사 (中非泰达投资股份有限公司)
나이지리아 차이지 자유무역구 (尼日利亚莱基自由贸易区)	중국-아프리카 차이지 투자 유한회사 (中非莱基投资有限公司)
러시아 우수리스 경제무역협력구 (俄罗斯乌苏里斯经贸合作区)	강지 국제투자 유한회사 (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러시아-중국 투오무스키 목재공업 무역협력구 (俄罗斯中俄托林斯克木材工贸合作区)	중항임업 유한회사 (中航林业有限公司)
에티오피아 동방공업단지 (埃塞俄比亚东方工业园)	장수 용위엔 투자 유한회사 (江苏永远投资有限公司)
중국-러시아 농업산업협력구 (中俄农业产业合作去)	헤이룽장 동녕화신 경제무역 유한책임회사 (黑龙江东宁华信经济贸易有限公司)
러시아 룡위에 입업 경제무역협력구 (俄罗斯龙跃林业经贸合作区)	헤이룽장성 무단장 룡위에 경제무역 유한회사 (黑龙江省牡丹江龙跃经贸有限公司)
헝가리 중국-유럽 상업물류단지 (匈牙利中欧商贸物流园)	산둥 디하오 국제투자 유한회사 (山东帝豪国际投资有限公司)

자료: 「“一带一路”年度报告: 行者智见」(2017), 『中国印书馆』, (2月)

## 라. 자금 융통(资金融通)

- ‘자금 융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금융 협력 △위안화 국제화 △ 금융감독 협력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선국가와 국제금융 기구 및 글로벌 금융협력을 통해 기초인프라 시설의 투자수요와 금융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목표로 함.
- [금융 협력 ‘일대일로’의 글로벌 금융협력은 수많은 계층과 주체가 참여, 중국의 주도하에 연선국가 및 지역과 글로벌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협력 심화를 통해 △통화 안정시스템 △투·융자시스템 △신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킴.

- [AIIB] 2015년 12월 25일 베이징에서 출범한 AIIB는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중 역내국가가 75%, 역외국가가 25%를 분담하며, 2016년 6월 25일 처음으로 4건의 5억 900만 달러 규모 대출을 승인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부문 등에 투입됨.
  - 출범 당시 57개 창립회원국으로 시작했던 AIIB는 2017년 3월 말 기준 △캐나다 △홍콩 △벨기에 △아일랜드 △헝가리 △페루 등 13개국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서 회원국이 70개국으로 늘어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규모를 넘어섬.
  - 한편 2017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AIIB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2,000명 내외가 참여하는 '제2차 AIIB 연차총회'가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아시아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임.
  - '제2차 AIIB 연차총회'에서는 △AIIB 정책 소개 △전략브리핑 △투자프로젝트 △투자프로그램 설명회 △에너지전략 설명회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인프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인프라 금융기관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활성화 방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인 방안 등 10여 개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임.
- [실크로드 기금] 2014년 12월 29일 베이징에서 설립한 실크로드 기금은 자본금 615억 2,500만 위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을 근거로 운영하고,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함.
  - 실크로드 기금은 2015년 4월 중국산사(三峡)그룹과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국가에 수력발전소 건설과 청정에너지 사업 프로젝트 투자를 시작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이후 중국화공(化工)그룹은 이탈리아 피렐리(Pirelli) 타이어회사 인수합병 및 러시아 야말(Yamal) 액화 천연가스 일체화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였으며, 세르비아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함.
- [신개발은행] 2015년 7월 21일 상하이(上海)에서 설립한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은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초기 출자금액 5,00억 달러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개발은행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16년 4월 21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8억 1,1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사업 프로젝트에 용자를 지원함.
- [정책성 금융기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등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도 '일대일로' 금융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국가개발은행은 2016년 6월 말 기준 60여 개국에 △교통 △에너지 △자원 등의 영역에 900건 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중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6월 말 기준 49개 연선국가에 △고속도로 △철도 △항구 △전력 △케이블 △통신 등의 영역에 1,000건 이상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내외 무역 및 투자규모 누적금액이 2조 3,000억 달러에 달하며, 수만 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신용보험 서비스와 수백 건의 △첨단기술 수출입 프로젝트 △대형설비제품 △플랜트 수출사업 △대형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보험을 제공함.
  - [중국상업은행] 중국상업은행은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건설은행 등 5대 은행으로 대표되며, 5대 은행을 포함한 9개의 중국상업은행은 2016년 3월 말 기준 '일대일로' 연선국가 24개국에 56개 지점을 설립하였음.
  - 한편 '일대일로' 연선국가 20개국의 56개 상업은행이 중국에서 7개 자회사 및 18개 지점, 42개 대표처를 설립해 '일대일로' 금융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위안화 국제화] 2016년 말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위안화 결제금액은 2조 6,300억 위안을 기록,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인민은행과 해외 중앙은행 간 통화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6년 8월 15일 중국인민은행은 35개국 중앙은행 및 기타 통화당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고, 그중 21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이들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3조 1,200억 위안으로 집계됨.
  - 또한 2016년 8월 20일 기준 중국은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은행과 본위화폐 무역결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30일 기준 위안화 청산은행이 20개로 확대, 그중 7개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설립됨.
  - 한편 현재 역외 위안화 시장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역외 위안화 시장 또한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럽이 아시아지역 외의 주요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표 7. 인민폐 국제화 현황

구분	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무역 및 투자	2016. 7. 30	-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위안화 결제 규모 총 2조 6,300억 위안
		- 중국이 192개국과 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
화폐협력	2016. 8. 15	- 중국인민은행이 35개국과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 그중 21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이들 국가와의 규모는 총 3조 1,200억 위안
	2016. 6. 30	- 중국은행과 해외시장 간 11개 화폐에 대한 위안화 직거래 시행
지불, 청산 및 결제 시스템	2016. 6. 30	- 위안화 청산은행 20개로 확대, 그중 7개가 '일대일로' 연선국가
	2016. 6. 7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러시아 중앙은행과 위안화 청산 MOU 체결
	2016. 6. 25	

자료: 「“一带一路”年度报告: 行者智见」(2017), 『中国印书馆』, (2月)

- [금융감독 협력]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FSB)<sup>12)</sup>이사회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sup>13)</sup> 등 국제회의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중앙은행장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금융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2016년 8월 20일 기준 중국인민은행은 39개국과 돈세탁방지에 관한 금융정보교류 협력 MOU를 정식 체결하였고,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28개국의 금융관리감독 당국과 양자 관리감독 MOU를 체결함.
- 또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9개 국가와 증권선물감독관리에 관한 64건의 관리감독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보험감독관리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임.

## 마. 민심 상통(民心相通)

- ‘민심 상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근간으로 △교육·문화 교류 △관광 교류 △의료위생 교류 △과학기술 교류 △청년 교류 △당정(党政) 교류 △민간 교류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실크로드의 전통적 협력정신과 우호를 계승하고, 다자간 민간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함.
- [교육·문화]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교육·문화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면서 발전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매년 1만 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유학생에게 정부장학금 지원 및 12만 명에게 연수기회, 15만 명에게 장학금, 50만 명에게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정부는 ‘실크로드 특별장학금’을 시행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중국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상호간 ‘국가의 해(国家年)’를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19차례 개최하고, 41건의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해외에 25개 중국문화센터와 125개 국가와 지역에 500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함.
- [관광] 2016년 6월 30일 기준 △하이난(海南) △신장(新疆) △닝샤(宁夏) 등 24개 지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관광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12)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약자로 세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금융안정 화포럼을 2009년 4월 G2-런던 정상회담에 따라 확대 개편해 새로 출범한 기구.

13)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약자로 1974년 12월 G10 회원국과 스위스 등 11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등 은행감독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감독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각국 은행감독 및 담당자간의 협력증대, 국제적인 신용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 감독기구.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관광의 해(旅游年)’ ‘관광주간(旅游推广周)’ ‘관광의 달(旅游月)’ 등 관광 홍보행사를 130여 차례 진행하였고, 21개 국가와 지역에 무비자협정 및 37개 국가와 도착 비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비자편리화 수준을 제고시켜 국가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국가관광국(国家旅游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3.5 계획」 기간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약 1억 5,00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을 송객(送客), 1,000억 달러 소비를 예측하였으며, 반대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국민들은 같은 기간 약 8,500만 명 규모가 중국을 방문, 1,100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함.

■ [의료위생] 중국은 2016년 6월 30일 기준 △동유럽 △ASEAN △아랍연맹 등의 국가유관기관과 △의료 인재양성 △공공위생 서비스 △중의학 등의 부문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3개국과 국가급(国家级) 협의를 체결함.

-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구빈(救贫)협력 계획 △공공위생협력 계획 등 29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 67개 국가 및 지역에 국제의료 원조 목적으로 52년 동안 해외에 파견한 의료팀은 총 2만 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6년 6월 30일 기준 51개 국가에 52개 의료팀을 파견, 그중 아프리카 42개국에 43개 의료팀을 파견하였음.

■ [과학기술] 중국은 2016년 5월 17일 「‘일대일로’ 우주관측 국제협력 베이징선언(‘一带一路’空间观测国际合作北京宣言)」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항공 △에너지 △생태환경 등 과학기술 방면에 56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13.5 계획」 기간 △‘일대일로’ 스마트단지 △연합실험실 △국제과학기술이전센터 △산업협력센터 △신제품개발센터 등 38개의 과학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해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표 8. ‘일대일로’ 민심상통 성과

구분	성과		건수
문화·교육협력	교육방면	정부장학금	1만 개
		교육협력 및 대외원조 활동	33회
		청년 교류 활동	8회
		청년인재 양성 계획	9건

표 8. 계속

구분	성과		건수
문화·교육협력	문화방면	‘국가의 해’ 행사	19회
		해외 중국문화센터	25개
		공자학원	500개
		문화 협력 MOU 체결	41건
		문화 관련 주요 회의	35건
관광	관광 협력 프로젝트		24개 지역
	‘관광의 해’ 행사		9회
	무비자협정 국가 및 지역		21개
	도착비자협정 국가 및 지역		37개
의료위생협력	의료위생 협력 및 협의		23회
	의료위생 협력 프로젝트		29건
	공익 환경보호 및 빈곤구제 활동		26회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 협력MOU 체결		56건
	과학기술 협력 관계 구축 국가		150개
	과학기술센터		38개

자료: 「“一带一路”年度报告: 行者智见」(2017), 「中国印书馆」, (2月)

### 3. 평가 및 전망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자오진핑(赵晋平) 부장은 지난 3년간 100여 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등에 ‘일대일로’ 건설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독려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함.

- 향후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지역 불균형이 해결되고, 도농 격차 해소 및 중·서부 내륙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용이해지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건설을 통한 물류시스템 개선 등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일대일로’ 건설에 힘입어 연선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의 대외교역 범위와 노선을 연장하여 글로벌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수연구소 리렌청(李连成) 부소장은 지난 3년간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경제회랑 건설 및 유라시아 대륙 연결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함.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6개 '경제회랑(经济走廊)'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과 인적교류 △ 취업유발 효과 △지역경제 발전촉진에 기여했으며, 중국과 연선국가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열차(欧亚班列)'를 통해 중국 교통건설에 해외투자를 실현했다고 평가함.
- 2011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화물열차는 3,000회로 연평균 약 250% 성장, 누적 화물컨테이너는 약 26만 개로 수출입 총액은 200억 달러에 달함.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장위옌(张宇燕) 소장은 최근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교역량 증가 및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인프라 시설의 상호연결(互联互通) 및 무역 편리화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1분기 중국의 GDP는 18조 683억 위안, 경제성장률은 6.9%로 그중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수출입 총액이 1조 6,600억 위안을 기록하며 동기대비 26.2% 증가, 이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26.7%를 차지하는 규모임.
- 한편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일대일로'와 자유무역구 건설 및 금융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FTA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중앙당고 국제전략연구원 자오레이(赵磊) 교수는 '일대일로' 건설은 세계의 △다변화 △경제글로벌화 △사회정 보화 △문화다원화 등 시대적 추세에 따르며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와 개방형 세계경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자원배치의 최적화 △시장융합 심화 △민간교류 강화 등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적극 탐색해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건설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 우즈펑(吴志峰) 연구원은 기초인프라 건설 및 산업발전이 '일대일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기초인프라 건설에 대한 용자지원 △자원 개발에 대한 용자지원 △산업협력에 대한 용자 지원 등 '지금 융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우즈펑 연구원은 '일대일로'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금융플랫폼 및 정책성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금융플랫폼과 정책성 은행이 개방적·정책적 역할 강화 및 현대적 은행시스템 업무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현재 금융협력 통해 대외무역과 투자편리화 촉진 및 아시아 지역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나, 투자 대상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투자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정치적·안보적 리스크 방지가 필요함.

[참고자료]

- 「“一带一路”年度报告：行者智见」. 2017. 『商务印书馆』. (2月)
- 「如何打造“信息丝绸之路”」. 2017. 『中国发展观察』. (第6期)
- 「聚焦“一带一路”在互利共赢中携手共进」.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4日)
- 「聚焦“一带一路”赵晋平：“一带一路”成效渐显机制化建设亟待加强」.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4日)
- 「聚焦“一带一路”“一带一路”政策沟通的三维成果」.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7日)
- 「聚焦“一带一路”赵磊：聚智、强效精准发力“一带一路”政策沟通」.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7日)
- 「聚焦“一带一路”资金融通将是“一带一路”建设的重要支撑」.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8日)
- 「聚焦“一带一路”吴志峰：资金融通需要大开放理念和全球化视角」.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8日)
- 「聚焦“一带一路”民心相通“一带一路”建设的助推剂」.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9日)
- 「聚焦“一带一路”王文：推进民心相通筑牢“一带一路”合作基石」. 2017. 『中国经济时报』. (4月19日)
- 「聚焦“一带一路”贸易畅通：打开“一带一路”市场“金钥匙”」. 2017. 『中国经济时报』. (4月20日)
- 「聚焦“一带一路”张宇燕：消除“一带一路”贸易障碍重展在现包容」. 2017. 『中国经济时报』. (4月20日)
- 「聚焦“一带一路”以构建自由贸易区网络为目标推进“一带一路”建设」. 2017. 『中国经济时报』. (4月24日)
- 「聚焦“一带一路”李连成：推进设施联通打通“一带一路”建设」. 2017. 『中国经济时报』. (4月24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동균(handongjun@hotmail.co.kr)